



10과
2026년
9월 5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 4:8-10)



누가 목회자의 삶이 편안한 삶이라고 말하던가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은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역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참된 사역자와 굶주린 늑대들을 구분하려면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역자들과 힘을 합해 자신들의 삶에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때, 교회는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을 나누어주는 주체가 됩니다.



- 목사의 사역
 - 목회자의 역량을 갖추
 - 사역에 따르는 위험들
- 교인들의 의무
 - 화목의 사절단
 -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 같이 노력한 결과
 - 위로와 기쁨

목사의 사역

목회자의 역량을 갖추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고후 3:2)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1세기 당시에도 추천서는 새 목회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추천서가 필요했습니까? (고후 3:1)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고후 3:2).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고후 3:3).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고후 3:6).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
영광스러운 영생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으며, 이
신념은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고후 3:7-9).



사역에 따르는 위험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4:15)

바울은 복음사역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위험들을 감수할 가치가 있음을 알았으며,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위험들을 감내했습니다(고후 4:15). 게다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고후 4:7-9).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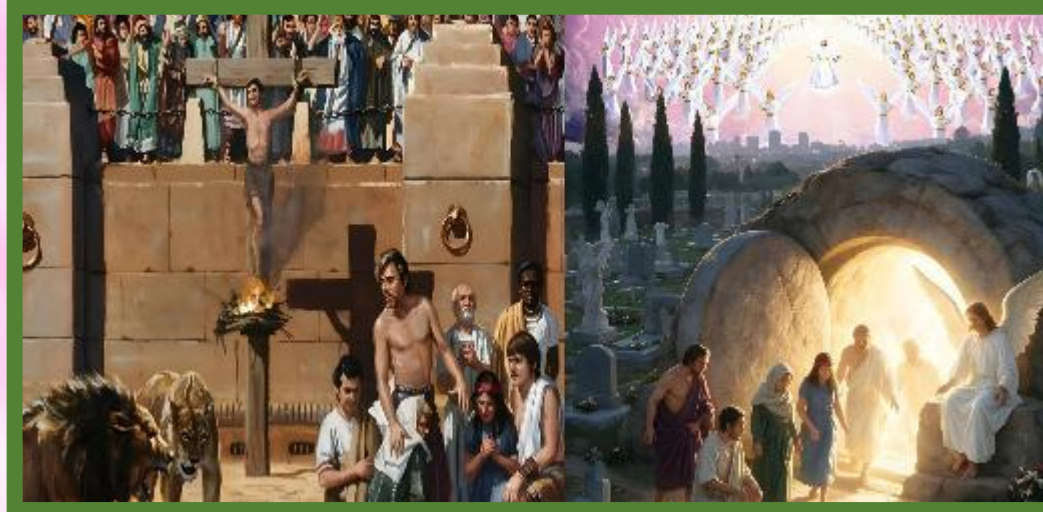
- ▶ 괴로움을 당해도
- ▶ 난처한 일을 당해도
- ▶ 핍박을 받아도
- ▶ 맞아서 쓰러져도

그러나...

- ▶ 꺾이지 않으며
- ▶ 실망하지 않고
- ▶ 버림 당하지 않으며
- ▶ 멸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전파되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부활의 날에 얻게 될 “지극히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일 뿐입니다(고후 4:14-18).



국민의 의무

화목의 사절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후 5:18)

교회와 각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고후 5:14). 이 사랑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를 감동해 그분을 위해 살도록 이끅니다(고후 5:14-1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삶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갑니다(고후 5:1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화목의 사절단이 되게 하셨습니다(고후 5:18-2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안에 살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동기가 생기며, “하나님과 화목하”(고후 5:20)라는 소망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목회자들과 교인들 모두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환란을 견디고 (고후. 6:4-5)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으며 (고후. 6:6)

진실되고 정의로움 (고후. 6:7)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고후. 6:8-10)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넓게 열고 (고후. 6:11-13)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고후. 6:14-15)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고후 7:1)

바울은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요약하여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과 그 삶의 결실들을 알려줍니다(고후 6:16-18).

부르심

- 죄악의 처소에서 빠져 나와
- 죄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고

결실들

- 내가 너희 중에 거하며
-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 내가 너를 맞아들이며
-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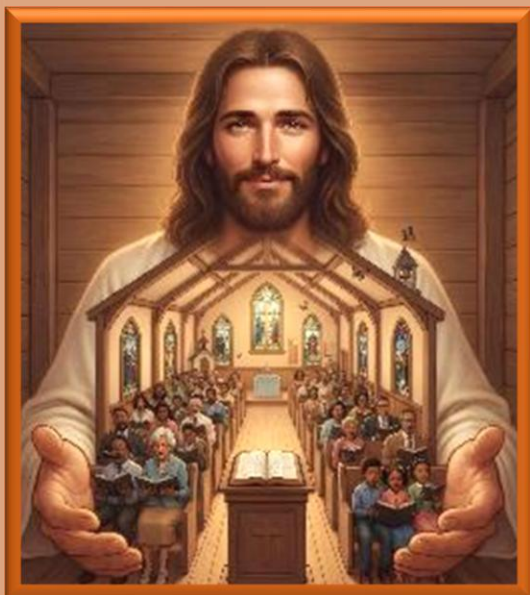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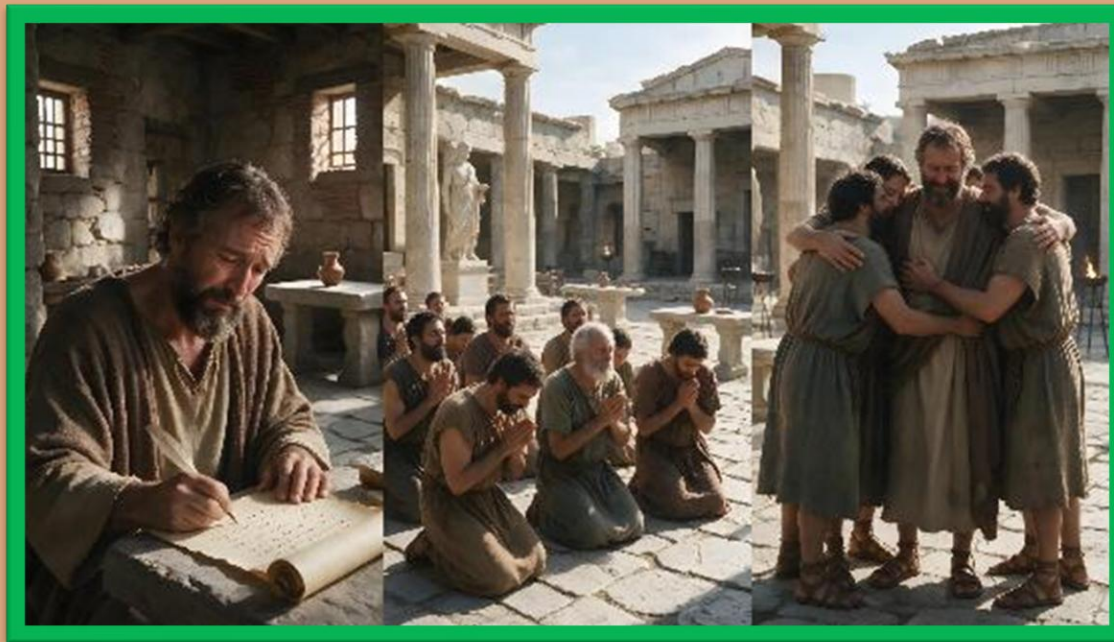
같이 노력한 결과

위로와 기쁨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고후 7:4)

바울은 갖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심히 기뻐했습니다(고후 7:4). 무엇으로 그는 기뻐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편지를 보냈고 그들은 근심했습니다(고후 7:8). 그러나 그들은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고후 7:9-10). 이 과정은 바울과의 관계 뿐 아니라 교인들 서로 간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고후 7:11-12).



그리하여 모두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의 동료인 디도가 위로를 받았고 (고후 7:7), 바울도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고후 7:6). 고린도 교인들도 위로를 받았으며, 이를 들은 바울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고후 7:13).

그러나 바울은 그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 (즉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고후 7:6).

“사역이란 봉사를 말하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역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만족만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매년 수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위해 이루어야 할 위대한 과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의 선물이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변화됩니다. 언제까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미룰 것입니까?”